

## 8차시.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사고

###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교통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 1. 개요 -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의 개념

### 1.1 보도 및 통행방법의 정의

-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보행자라 함은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 통행방법: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1.2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사고의 정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에 해당하여 11대 중과실사고로 처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침범은 보도에 차마가 들어서거나 보도에 차마의 차체가 걸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차량의 일부만 침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2. 대표 사고유형

(1)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상에 서있는 보행자를 통행차량의 바퀴가 연석에 걸리면서 차체 전면으로 충격한 경우 형사 처벌 받는가?

- 차체 일부라 할지라도 전면이 보도를 점령하여 사람을 충격한 경우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10월 사이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미숙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차량의 방향 전환 시, 보도에 차량이 일부라도 진입하지 않도록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보도에서의 사고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는가?

-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도침범사고로 평가하지 않는다. 도로 횡단 전 일시정지 및 보행자 통행방해 금지'에만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보도통행방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단순 일반교통사고로 적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블럭이 없는 갯길을 건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차량은 보도침범사고로 처벌받는가?

- 차도와 별도의 인도(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사고의 경우는 비록 차로를 벗어난 갯길에서 충격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인도침범사고로는 보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설치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횡단보도, 보도에 해당되지 않아 그곳을 침범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 차도 간 구분된 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안전표지나 시설물 등으로 보도, 차도를 구분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여 안전운전 해야 한다.

### 3. 사례

가해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나,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결과,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격한 경우 가해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보도침범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7.05.23. 선고 95도1232 판결).

### 4. Q&A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보도를 침범한 자동차와 충돌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도를 통행하는 것 역시 자전거의 주행속도와 무관하게 보도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내려 끌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어야 한다. 이 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 5. 안전가이드 Tip

- ① 보도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길이므로 자동차의 편의를 위해 보도에 진입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을 주의한다.
- ③ 자동차의 일부라도 보도에 침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종합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④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⑤ 보도는 설치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치한 것을 의미하기에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자체 편의를 위해 설치한 보도를 침범시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⑥ 보도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는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⑦ 운전미숙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차량의 방향전환시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⑧ 보도에 인접한 건물로의 진입시 보도를 침범하며 진행하지 않는다.
- ⑨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보도에서는 좌우를 살펴 운전한다.